

특별기획 -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cop28'

“아름다운 자연, 기후변화로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여수 중심 남해안 10개 지자체 공동유치 적극지지

남해안·남중권 유치 시,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관심과 참여 끌어낼 수 있는 계기

202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가계획 반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수시는 COP28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가계획 반영과 유치 선점을 위해 청와대·환경부 등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는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하 COP28)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유치 적극지지 선언을 했다. 남해안·남중권 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 남해안·남중권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상징성이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는 바다, 산, 내륙의 지형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기후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낙안읍성, 진주성 등 다양한 역사 문화적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천만국가정원 등 생태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통해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이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해안·남중권 공동 유치 추진의 상징성 또한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본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10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간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개최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국토 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에 기여하는 측면 역시 중요하다. 대규모 참여자가 방문하는 만큼 숙박, 교통 등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될 수 있다. 자연의 훼손이나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각종 인프라가 지방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남해안·남중권 유치 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확연히 다르다.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절박하게 외친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COP28을 시작으로 기후 문제가 우리 삶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의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 서울시가 푸른 숲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정원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

특히 작년 한 해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시민과 함께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함으로써 나무심기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 잡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우리 대한민국은 cop28 유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박> 기후변화 관련 최대 국제회의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참가국 규모와 총회의 파급력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최도시가 갖는 상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의 파리협정과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COP3의 교토의정서에서 보듯, 총회 주요결과는 개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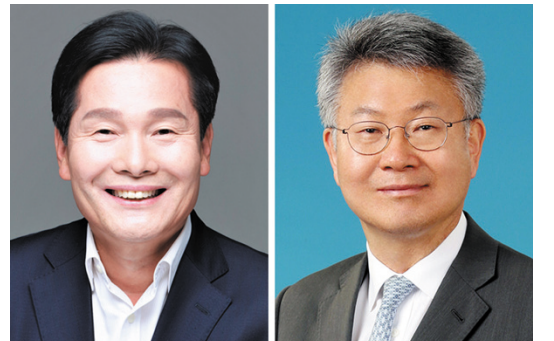
이번에 한국에서 COP28이 개최된다면 지난 97년 일본에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서울시도 올해 말까지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찾아 시민들이 실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및 다양한 참여의 통로가 필요하다.

최> 여수시는 COP28유치위를 출범하고 지원 조례제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고 시민중심으로 100만인 홍보유치 서명 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대사 박원순 시장의 힘이 될 수 있는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수 갑 주철현, 여수를 김회재 당선

(관련기사 12면)



▲주철현 의원

▲김회재 의원

Diamond Non-Slip

다이아몬드 논슬립 미끄럼방지

전체 재해의 약 34%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입니다.

- 01 강력한 미끄럼 방지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용착되어 있어 미끄럼방지 기능이 탁월
- 02 염분, 유분, 케미컬에 강함
기온 변화가 많은 곳, 염분, 유분, 화학물질 등 악조건에서 사용가능
- 03 화재 시 안전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
- 04 원가 절감 (반영구적 사용)
논슬립 테이프에 비하여, 1m당 연간 13,256원 절감 효과
- 05 시각적 효과
상부 형상 무늬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어 시각적 효과 및 홍보에도 활용가능

보온·배관·각종탱크·비계설치 및 해체 전문공사

(주) 다운ENG

대표 김성은

전남 여수시 주삼덕양로 159번지
Tel. (061) 691-9399
H.P. 010-3644-5859
Fax. (061) 691-9398
E-mail. daon9399@naver.com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1차 임시총회

기후 환경 선진국으로서 도약 및 기후정의 실현하는 최적의 기회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제1차 임시총회가 지난 1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따르기 위하여 50여명의 위원들만 참가했다.

198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COP28은 기후 환경 선진국으로서 도약 및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최적의 기회로 경제규모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류중구 공동유치위원장은 "남해안남중권 유치는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이

공동 개최함으로써 동서화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 위상강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COP28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열망이 강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산을 계승함으로써 전세계에 해양환경의 중요성 부각시키고 전 세계에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선언문 정신을 알리는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라고 남해안남중권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윤공동유치위원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늦었다. 시간이 없다. 남중권 중심도시 여수에서 약속했던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겠다는 세계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

조하며 COP28유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유치위는 중앙부처(과기, 기후, 외교부, 환경부) 방문 지원 요청을 하고 전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지자체 방문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홍보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5월 경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선로 및 국회토론회를 갖고 제7회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기후포럼 개최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6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분과, 시민활동분과, 지원협력분과, 대외홍보분과를 편성해 본격적인 유치홍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현란기자



'제 1회 2022 COP28 유치위원회 홍보분과 간담회'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에서 개최

SNS, 100만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유치부 조성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꿈뜨락몰 활성화 위해 마련

COP28 여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제 1회 2022 COP28 유치위원회 홍보분과 간담회'가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에서 개최됐다.

COP28 유치위원회의 홍보분과 관계자는 남해안남중권의 유치 선점의 일환으로 SNS, 100만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유치부 조성 및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꿈뜨락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음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꿈뜨락몰 청년들과 여수지역 청년발전협의회 등 여수 지역 젊은이 40여명이 주축이 되었다.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 류중구 공동위원장은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COP28 유치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것이고 국가위상을 높이며 여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어필했



다. 특히 "COP28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철학과 역사이며 우리가 살기 위해 꼭 이뤄내야하는 소명이다"고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꿈뜨락몰바른생활 방문용 회장이 SNS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법을 강의하여 COP28 여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추진한 김영주 홍보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홍보와 오프라인 서명 받기에 어려움이 많다. 여수시와 COP유치위원회가 COP28 여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온라인 지지서명을 만들어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즐겁고 효과적인 SNS 홍보를 기대한다" 말했다.

최현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COP28여수유치 지원체계 마련 약속

이용재의장, 도의회 추경 사업비 지원 건 채택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갖겠다 류중구 공동의장, 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가 마이스(MICE) 산업 메카로 육성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COP28여수유치위원회가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적 유치 활동 및 온라인 지지서명 운동 마련 협의를 위한 좌담회를 미래인재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최현란(여수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이광일도의원, 백인숙여수시의원을 비롯하여 여수지역 각 계 각 종의 대표 15명이 참석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장재의장에게 COP28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서남해안 한해관센터장은 "COP28유치위원회 사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 의장은 "COP28유치위원회의 활발한 유치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도의회 추경 심사에서 관련 사업비 지원 건이 채택

의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장은 SNS 팀장의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는 협조요청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많지만 온라인을 통해 유치 서명 운동하는데 전남도의회도 적극 참여하겠다."

COP28이 여수 남해안남중권에서 유치된다면 여수뿐 아니라 근처 순천 광양을 비롯하여 전남 경남 10개 시,군이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고 전망하며 "전남도의회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유치위원회 류중구 공동의장은 "이번에 실시한 용역조사에 따르면 당사국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680억 원에 달하고,



41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분석했다"며,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여수가 마이스(MICE) 산업 메카로 육성되고 다양한 방면의 산업 발전이 생길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동서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환경 보존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공존체 모두를 위한 경남 전남 도시연합의 COP28 유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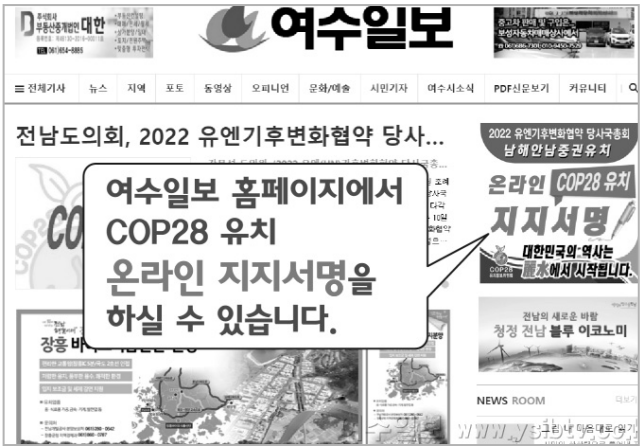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온라인 지지서명, 국가위상 강화위한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여수시와 COP유치위원회가 COP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온라인 지지서명을 만들었다.

동서화합을 통한 국가위상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며 이에 2020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핵심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가 여수선언 정신을 되새기며 한층 탄력을 받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을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해 4월 착수해 1년여 만에 마치고 지난날 26일 최종보고회를 종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COP28 유치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국가 모델이며,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한 여수선언문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의 유치는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할 뿐 아니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수시 권오봉시장은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 산업부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주도, 지속가능한 COP28 개최를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준비하고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COP28 여수유치 위원회는 여수에서 COP28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여수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COP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온라인 지지서명 여수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지서명을 할 수 있다. 여수일보 홈페이지 주소 http://www.ystv.tv.kr

유희민 기자

탄소사냥꾼 조세윤, 기후변화 비상사태 늦출 수 있는 행동 바로 시작해야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각 지역 10곳이 힘을 모아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유치에 나섰다. 조세윤공동유치위원장은 남해안남중권유치활동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볼 때 그 민족이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갈등인 지역 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이 동서간의 지역갈등이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남해바레지기 탄소

사냥꾼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운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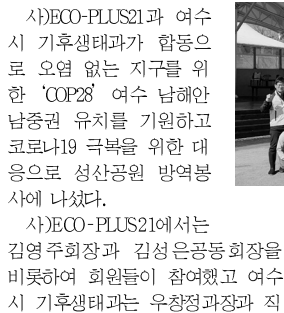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에서 온다고 말한다. "인간이 저지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지구온이 상승하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농경지 침수, 산지훼손 등 결국 인간이 숙주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늦었지만 현재의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늦출 수 있는 행동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가 탄소사냥꾼으로 나서서 탄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기자

'(사)ECO-PLUS21과 여수시 기후생태과' 함께하는 코로나19예방 방역봉사



(사)ECO-PLUS21과 여수시 기후생태과가 합동으로 오염 없는 지구를 위한 'COP28' 여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으로 성산공원 방역봉사에 나섰다.

(사)ECO-PLUS21에서는 김영주회장과 김성은공동회장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참여했고 여수시 기후생태과는 우창정과장과 직원들이 함께 했다.

이날 방역봉사에 40여명이 무성산공원 사당해 빨간삼각 테크와 어른신들이 식사하는 식탁, 차 등을 물차로 물청소와 방역소독

까지 마무리 했다.

여수시 기후생태과 우창정과장은 "(사)ECO-PLUS21과 여수시 기후생태과가 함께 COP28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와 함께 코로나28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며 함께 봉사한 취지를 밝혔다.

유희민기자

여수일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길 18, 1층

고문 박군상 / 회장 정민근 / 발행·편집인 한영래
 편집국장 최향란 / 대표 김영주 / 시민기자 대표 차기철

대표전화: 061 654-8885
 기사제보: 독자투고: 061 654-8885, 팩스: 070 8220-8808
 기사제보: 배달안내: 061 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061 654-8885

*등록번호: 전남 00343(주간) *등록일: 2014년 7월 11일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권 시장, cop28 여수중심 남해안·남중권 유치 홍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위해 많은 협조와 활동 부탁’

여수 역사와 철학 위해 국가와 미래를 위해 지역단체가 COP28 여수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 SNS 홍보 활동 하는 젊은 회원들에게 직접 COP28 배지 전달

여수 권오봉 시장이 세계가 주목하는 여수의 역사와 철학을 위해 그리고 국가와 미래를 위해 해양관광도시 여수 남해안·남중권에서 COP28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시·군 22개 시장과 군수를 한 분 한 분 만나 간곡히 부탁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사)ECO-PLUS21과 여수청년발전협의회 자원봉사자들을 시장실로 초청여 만나 격려의 시간을 갖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권오봉 시장은 차담회를 통해 “2022년 개최될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져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홍보에 어려움이 많다. 지역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COP28이 무엇인지 여수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격려와 고마움을 표현했다.

여수시는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여수,순천,광양시, 고흥,구례군, 경남진주,사천시, 남해,하동,산청군)으로 구성된 유치 위원회와 함께 COP28을 여수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민들 대상으로 100만 명 온라인 지지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권 시장은 2018년부터 COP28이 여수를 중심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년에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여수의 역사와 철학을 위해 그리고 국가와 미래를 위해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COP28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시·군 22개 시장과 군수를 한 분 한 분 만나 간곡히 부탁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할 계획이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최현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여수시 기후생태과와 함께하는 ‘함께해요 자봉~’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여수 남해안남중권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발레이 퍼포머스에 열정을 가지고 COP28 유치를 적극지지 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 만들기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cop28, 여수 남해안남중권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1차-기아자동차 문수대리점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최초이자최고의 이름을 갖다 미래지향적인 기술 최고의차-



2차-세브레 여수 전시장.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전기차 볼트 적극 추천!! 직장인중 장거리 출퇴근으로 매력적-



3차-탱크로이운송전문기업 (주)해니로 (대표 유현진) 군부대 항공유 납품과 일반 항공기출발 운송



4차-여수 소라면에 있는 류연창 대표의 개복지 애견피코, 애견 동반카페 애견호텔 애견운동장, 애견유치원, 애견교육



5차-박지민 스타일 매뉴어 헤어샵! 코로나이겨냅니다! 컷트고-니블이고-빈모할인! 행사를매주 화요일에-



6차-여수교육지원청 김용대 교육장. 365일 꿈꾸는 학교-배움의 공동체 함께 만드는 혁신여수교육



7차-여수남초등학교 김대진 교장 건강한학교 착한 교육을날개로 내일의꿈을 만들어가는 어린이꿈터-!!



8차-사)ECO-PLUS21과 여수 청년들 적극 동참 환경단체 사)ECO-PLUS21과 SNS 활동 활발한여수지역청년들 동참 큰활력 기대



9차-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이우범 부총장의 동참이 여수지역 대학생들의 유치원으로조성될 것으로 기대



10차-"청춘은바로 지금" 청바지봉사동아리. 임미들이 할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11차-여수출신국회의원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이사회 UN기후변화협약사국총회 유치 100만인서명운동 참여



12차-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COP28여수유치 지원체계 마련 약속. 이광일도의원 백인숙여수시의원적극 지지



13차-여유로움과 낭만이 있는 완벽한 휴식!! 피라미드 구들 황보탕'펜션' 원적의선이 인체에병사되어진신대사가 원활히이루어지는 힐링의 공간



14차-기후보호주간 홍보동영상 '지구인' 촬영 사단법인 ECO-PLUS21 청소년지킴이 2기 '지구는 우리가지킴이!!'



15차-"일출-일몰 오션뷰 최고" 여수 'JCS 특급호텔 '즐거움과편안함'이있는 공간(JCS, Joyous Comfortable Stay)'



16차-사)ECO-PLUS21과여수시기후생태과 '오염없는 지구 COP28' 여수남해안남중권 유치기원

여수시 의회, 미납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이행하라'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여수시 행정 권위 회복하라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김행기 의원 발의 매출액 3% 기부약정 즉각 이행, 공개 사과 등 촉구



해상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이 2017년부터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공익기부 약정을 즉시 이행할 것과 여수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것이다.

결의문은 여수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여수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전 화해조치 내용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여수 대표 관광시설이 됐고, 2018년에는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러한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2017년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 미납된 공익기부금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5년부터 2년간은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

현재 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이날 "케이블카 측의 이러한 태도는 여수시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 공익기부금 회피할 목적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각종 불만을 감내해왔던 여수시민은 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수시로부터 공원해제,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에 따르면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면)의 경우 케이블카 측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장 부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해결했다.

또한 여수시가 주차장 준공까지 약 1년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케이블카 측은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특히 여수시민들은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왔고, 시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없이 교통대책 근무에 종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결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기부금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5년부터 2년간은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케이블카 측의 이러한 태도는 여수시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 공익기부금 회피할 목적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각종 불만을 감내해왔던 여수시민은 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수시로부터 공원해제,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에 따르면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면)의 경우 케이블카 측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장 부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해결했다.

또한 여수시가 주차장 준공까지 약 1년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케이블카 측은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특히 여수시민들은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왔고, 시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없이 교통대책 근무에 종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결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기부금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5년부터 2년간은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

여수시의회 소식

김영규 의원, 만흥매립장 인근 주민들 입장 전달 해결방안 마련 촉구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은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설득과 부각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9회 임시회 본회의 10분발언 주자로 나서 만흥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만흥매립장은 지난 1994년 325만 톤 용량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다.

주민들은 만흥매립장의 매립기한이 올해 3월로 예정된 만큼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수시는 용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흥매립장은 3월말이면 예정된 사용기간이 끝이 난다"며 "주민들은 그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 입장 대변과 함께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 신중하게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좋은 방안이나

김 의원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서둘러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조금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부탁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흥동 위생매립장 기간 연장 문제 시간이 이젠 없다"며 "주민들과 함께 좋은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유희민기자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 흥화A 진입로 혼잡 개선 촉구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문수동 흥화아파트 진입도로 교통 혼잡과 아파트 일대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흥화아파트 진입 이면도로 혼잡과 관련해 "문수동 783-6 내대지를 매입해 도

로일부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여문지구 일방통행 시행에 따라 아파트 주민 등이 주 진입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좁은 이면도로로 물리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5년 16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같은 개선대책을 제안했지만 추진되지 않았고, 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했으나 경찰서에서 안전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필지가 현재



은 아파트 앞 주차공간 부족 문

내대지가 때문에 개선이 가능하다"며 앞서 밝힌 대책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제 현재 조성된 주차장(문수동 699)을 확충해서 해결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주차장은 21면으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면이 너무 적다"며 "2층 정도의 주차타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선광기자

고용진 여수시의회 "직장 괴롭힘 대응 인권메뉴얼 마련해야"

고용진 여수시의회원은 여수시청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하며 "인권침해는 당사자로부터 시작됐지만, 사건에 대응하는 여수시의 태도를 보고 이번 사건이 조

직문화의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먼저 "최근 신규공직자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엄중한 경고도 사후대책도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지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조직 자체의 인권의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가 취해야 할 매뉴얼도 없고, 비슷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필지가 현재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5년 16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같은 개선대책을 제안했지만 추진되지 않았고, 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했으나 경찰서에서 안전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필지가 현재



진술한 사과와 피해자 복구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인권

사과와 피해자 복구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인권

사과와 피해자 복구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인권

사과와 피해자 복구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인권

김선광기자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공공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등을 '음주정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신설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19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조례 명칭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정지지역 지정, 음주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이다.

먼저 음주정지지역의 경우 '도

시공공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등을 '음주정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신설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19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 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

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 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최희란기자

주중섭 여수시의회 "코로나19 공동체 힘으로 극복"

주중섭 여수시의회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질병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은 199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재난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형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 의원은 먼저 코

로나19 대응에 대해 "여수지역은 사실상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시스템도 잘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형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특수한 공공의료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재난상황 발생 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마련도 강하게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수시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에서도 각종 재난기금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을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여수산단과 관련해서는 "석유화

주 의원은 이날 재난상황 발생 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마련도 강하게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수시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에서도 각종 재난기금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기자



범용테크

Plant Equipment Sales & Service
Solvent & Chemical Sales

가스검지기, 수신부

(주)가스디엔에이

스팀트랩, 응축수 회수

spirax sarco
First for Steam Solutions

기계가공품, Mesh 등

(주)뮤엠기계

제품문의 **061-644-2330** / Fax 061-644-2320

본사 / 대표이사 : 김 범 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84
Tel. 061-691-8515 / Fax. 061-644-2320

(유) **대길CP** ABS 및 EP Compound 가공
롯데첨단소재 공장내 / 207명

(주) **대길MF** SBR 및 EPDM 포장, 출하
롯데 베르살리스 공장내 / 37명



Gas Detector



Steam Trap



Mesh & Flexible Hose & Strainer

야간관광 100선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

여수, 목포 등 9개 시·군 13곳 선정

전라남도는 한국관광공사 가 국내 곳곳의 유망한 야간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모아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에 목포·여수·광양 등 도내 9개 시군 1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야간관광 100선'은 집계된 관광산업 회복과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추진한 신규 핵심 사업으로 야간관광 매력도와 접근성, 치안·안전,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됐다.

지역별로 목포시(갯바위해상보행교, 추추는 바다분수,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남만포차,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밤바다&남만버스킹)가 각각 3곳씩 선정됐으며, 광양시(구룡산전망대), 담양군(폴라타너스 별빛달빛길), 곡성군(곡성섬진강기차마을), 보성군(보성차밭빛축제), 장흥군(정남진장흥물축제), 강진군(나이트 드라이브), 신안군(천사대교)이 각각 1곳씩 선정됐다.

여수 남만포차와 여수밤바다&남

만버스킹은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보여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함께 걸을 수 있는 남만의 거리로 각종 공연과 축제가 다채롭게 열리는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를 중심으로 다도해의 탁트인 전망과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이번 '야간관광 100선'에서 서울특별시와 제외한 광역시도 중 13곳으로 최다 선정됐



으며, 도는 이번 선정으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관광업계에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관광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앞으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며 "야간관광 100선을 활용해 전남에서 다양한 야간여행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란기자

알림방

여수시,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참여자 모집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창업 초기인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0명을 선발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4월 13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청년 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이하여야 한다. 또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먼저 현장진단, 상권 입지조사, 매장 경영분석 등 3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중에서 심사에 통과한 5개 점포를 선정해 환경개선,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450만 원 이내의 사업과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ikim@ccci.kr) ☎061-661-1981로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무직 및 환경미화직 34명 채용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규)은 공무직 및 환경미화직 총 34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공무직 3명(주차관리 1, 청소소 1, 수상안전 4), 환경미화직(장애인특별채용) 6명으로 총 34명이다.

응시자격은 공무직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이며, 주차관리 및 청소원은 '여수시'에 수상안전은 '광주·전남에', 각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 18시까지이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인터넷 접수로 실시한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yumcorp.or.kr) 및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061-662-8219)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여수시,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여수시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에 마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 7770필지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며 전화(061-659-3361~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일사원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5월 15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여수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주택지원사업 추진

여수시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다.

태양광 시설은 kW당 335천 원(3kW 최대 1,005천 원)을, 태양열 설비는 14㎡ 이하는 ㎡당 73천 원(최대 1,022천 원), 20㎡ 이하는 ㎡당 65천 원(최대 1,300천 원)을 지원한다.

340여 세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유희민기자

개학 연기 휴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학생, 원아가정에 공급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판로를 잃고 위기에 빠진 농가도 살리고, 개학 연기로 부담이 큰 가정도 지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태)과 협업하여 관내 3만 9천여 명의 학생과

원아가정에 14억 2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특수) 학생 1인당 40,000원,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1인당 24,000원 상당으로 구성된 여수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병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 학교는 개인정보 통의를 거쳐 일괄 택배로 발송되며,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은 보육시설을 통해 원아에게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 1일, 학교급식이 40일 이상 중단되면서 판로를 잃고 위기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

해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을 친환경농산물을 학생 가정으로 전달하는 사업으로 대체할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고, 농가와 가정을 살리는 여수시의 상생전략은 전남도내 지자체 전체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여수시가 건의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되어 기쁘다"며,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김영주기자

여수시의회, 도시역사문화 자원 활용 조례 제정 민덕희 의원 발의... 자원수집부터 보존·활용까지 전반적 규정



▲민덕희 의원

여수지역 도시역사문화 자원의 조사와 수집, 보존, 공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는 문헌, 사진, 영상, 전설, 민요, 문화재 등 우리 주위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부터 실물자료의 수집, 자원의 보존, 대외,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담겼다.

조례는 먼저 조사대상 자원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변화대상 지역 △고유한 특색을 가진 거리·마을·행사 △문헌 기간 축적된 지역 문화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사건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시 공립박물관 등 적절한 보관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자료가 보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하고 개인·단체 등에 배포, 연구단체 등에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접붙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찬란한 유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해 기록하고 보존해 '여수다운'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영주기자

우리 동네 소식

한려동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역

여수시 한려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성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8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한려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은 2개조로 나누어, 연막 및 분무소독기로 이용자들의 손잡이 직접

닿는 주민 편의시설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취약시설은 물론 골목 구석구석까지 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섰다. 이성현 한려동 주민자치 위원장은 "한려동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방역을 실시했다"며 "앞으



로도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시 여서동, 마스크와 성금 두고 간익명의 기부자

여수시 여서동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와 성금을 놓고 간 사실이 알려져 따뜻한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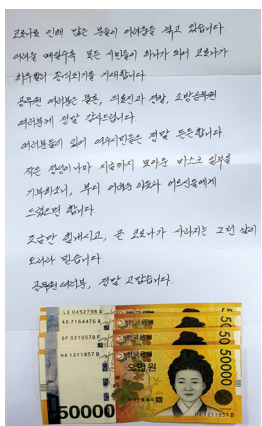
여서동(동장 조민수)에 따르면 지난 2일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그동안 모은 마스크 48개와 현금 20만 원을 넣은 상자를 두고 갔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편지에는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모

아둔 마스크 일부를 기부하오니, 부디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드렸으면 합니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공무원과 의료진, 경찰,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이 있어 여수시민들은 정말 든든합니다"라고 밝혔다.

여서동주민센터는 민원인이 기부한 마스크를 신장부식환자 13명에게 나누어 배부하고, 성금은 한 부모 등 어려운 가정에 보내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선광기자

KU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Ltd.
 보성테크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Bosung Tech
 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인터넷 www.bsa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

한국동서발전(주)호남화력본부 온라인 개학대비 농어촌학교에 스마트기기 지원

농어촌지역 상암초, 묘도분교 온라인 학습용 스마트기기 1,000만원 상당 물품 지원

한국동서발전(주)호남화력본부는 4월 14일(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상암초등학교 및 묘도분교에 온라인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호남화력본부에서 지원한 스마트기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어지지 않는 학생들에게 우선 대여될 예정이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강화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원하여 온라인 강좌의 품질을 향상시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주)호남화력본부는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료방역 실시, 사랑의 릴레이 헌혈,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형란기자

한국동서발전(주)호남화력본부는 4월 14일(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상암초등학교 및 묘도분교에 온라인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호남화력본부에서 지원한 스마트기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어지지 않는 학생들에게 우선 대여될 예정이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강화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원하여 온라인 강좌의 품질을 향상시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주)호남화력본부는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료방역 실시, 사랑의 릴레이 헌혈,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형란기자



여수대대 예비군부대 여수시내 60개 유치원 초·중·고교 방역지원

여수시민 없으면 여수대대도 존재 할 수 없다...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봉사활동

여수대대 예비군부대가 초, 중, 고교 및 특수학교 등 60개 교육기관에 방역지원에 나섰다.

4월 9일부터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방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학교 개학 및 등교가 중단되고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수그러들지 않는 한 당분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안전이 확보 되어야 할 시점에서 여수대대(대대장 중령 박성수 육사 59기)는 "여수시와 여수시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4월(월)부터 4월 8일(수)까지 3일간 여수시내 방역이 필요한 60개 학교(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방역을 지원 했다.



여도중학교, 미평초등학교 등을 현장 지도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은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여수시민이 없으면 여수대대도 존재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지역방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필 지역대장을 비롯하여 시기동대장, 예비군지휘관, 상근예비역 등 24명이 편성되어 방역기를 메고 사흘간 구슬땀을 흘렸다. 여수시 지역대장 5급 이종필은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한 초유의 사태에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봉사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소라면대장 권오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관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군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삼일묘도동대 상근병, 박요한은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 놀 동생들 같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진입로, 현관,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배수로 등 꼼꼼하게 방역을 실시했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니 힘이 나고 추가 확진 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먼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조심하자"는 마음이 굳건해 지는 기회였다"고 했다.

한편, 대대장은 2020년 3월4일 취임 이래 민, 관, 군 통합방위체제를 통한 전투력 극대화와 무엇보다 대군 대민 신뢰도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격적으로 대민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용태시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봉사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소라면대장 권오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관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군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삼일묘도동대 상근병, 박요한은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 놀 동생들 같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진입로, 현관,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배수로 등 꼼꼼하게 방역을 실시했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니 힘이 나고 추가 확진 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먼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조심하자"는 마음이 굳건해 지는 기회였다"고 했다.

한편, 대대장은 2020년 3월4일 취임 이래 민, 관, 군 통합방위체제를 통한 전투력 극대화와 무엇보다 대군 대민 신뢰도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격적으로 대민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용태시민기자

(유)금오관광 1일 1회 방역, 코로나19 철통방어

방역 전문 업체 통해 통근 버스내 방역소독 위생관리와 방역소독 철저히 전 직원 마스크 배급, 차내 손소독제 비치 선제 대응

전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로 충격인 가운데 여수국가산단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유)금오관광업체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통 방역'을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철저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제적 대응에 대해 칭찬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예약이 취소되는 등 관광산업이 심각한 사정으로 눈에 빠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유)금오관광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직원 모두에게 마스크를 배급하고 차내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예방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또한 방역 전문 업체를 통해 차내 방역소독을 하여 위생관리와 방역소독을 하고 매일 자체 방역을 하는 등 철저한 '철통방어'를 해왔다.

(유)금오관광 김영주 대표는 "코로나가 유입되지 않기를 바라며 1



일 1회 차내 방역을 해왔는데 여수가 안전되길 바란다"고 예방과 방역을 강조했다.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회사원 B씨는 "금오관광의 사전 예방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문방역에 힘써주니 안심입니다"고 말했다.

최형란기자

'거문도해풍속 영농조합법인' 남주현, 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6차산업 성공모델, 지난해 36억 원 매출 급격한 성장

전라남도는 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여수시 '거문도해풍속 영농조합법인' 남주현 대표(58)를 선정했다.

남주현 거문도해풍속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45ha에 이르는 속재배 단지를 운영하며 재배법을 표준화했으며, 속떡, 속분말 등 가공식품 개발과 힐링 체험장, 판매장 운영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일찌감치 성공했다.

거문도해풍속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7년 설립 초기 매출액이 1억 원에 불과했으나 해풍속으로 만든 냉동속과 속깨떡, 속송편 등 가공 상품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학교급식, 초록마을, 떡 가공업체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면서 지난해 3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거문도 해풍속'은 지난 2008년 지리적표시·단체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일본·미국 등 해외상표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농식품 파워브랜드 3년 연속 선정, 2018년 향토산업 우수지구로 지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 대표는 "앞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로 품질 고급화에 힘쓰고 현재 속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한 13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내년까지 전체 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해풍속의 성분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남 융복합산업인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역자

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권역별 6개반 편성, 사각지역은 드론 활용 집중 단속 예정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여수 관내 양귀비 무단재배 적발 건수는 38건에 이르며,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

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여수해경은 여수~고흥~여주만~거문도에 이르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여수해경은 권역별로 6개반을 편성,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기자

여수일보사 호루라기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제보자는 신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제보방법
전화 061-654-8885, 061-810-0011
메일 ysibtv@hanmail.net

우동식의 <詩 읽어 주는 남자>

그래도 꽃은 피잖아

봄이라는데,
관세사의 지시기가 있을 때까지
두문불출의 저울적막이 계속될지도 몰라
마스크 없는 새들은
어느 날 지구 밖까지 날아갈지도 몰라
무주공산떨고 있는 나뭇가지들,
단단히 감고 있는 저 꽃눈은 열꽃을 피울지
한 채의 폐기처럼 침몰해갈지도 몰라
주일날 아침에 들던 미사 종소리를
이제 고전에 서나 겨우 읊게 될지도 몰라
바람은 해석되지 않은 타인과의 거리로
법정구속될지도 몰라
얼굴 없는 얼굴, 손 없는 손,
거리는 흥흥한 소문들로 빗장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박은숙

누구나 투명한 채 속살
을 보여주기 위해
산산이 부서지는 연습
을 해야 할지도 몰라
입구와 출구를 봉하는
막다른 골목,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그뭇처럼 감감
히

안개 속을 헤매게 될지도 몰라
봄은 영영 문을 닫을지도 몰라
그게 최선인 듯,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듯,
그래도 꽃은 피잖아
우리 봄을 한 번 믿어봐

/ 詩詩한 이야기 /

'코로나19'의 봄



우동식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다.
봄 대신 중국 우한에서 '코
로나 19' 라는 꽃처럼 생긴 바
이러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이웃
나라로 침투했고 이웃 나라들
은 속수무책으로 승격당하고
말았다.
무기 없이 전염하지 않고도 세계는 점령당했다.
빠른 속도로 감염이 발생했고 세계 확진자가
1,853,155명이 육박했고 사망자가 11,4247명에 이
르고 있다. 이것은 아직 현재 진행형 일 뿐이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확진자 증가 추세여서 어떻게 진
행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점령군에 의한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폭발적으
로 발생할지 이 전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최첨단 무기를 뽐내며 인공
지능 전자시스템이 일상화 된 시대이지만 미세한
바이러스에 세상은 속수무책이다. 뚜렷한 치료제
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입을 닫아야 했고 발
을 묶어야 했고 거리를 두어야 했다.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가 줄줄이 취소되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장소
는 폐쇄되거나 문을 닫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나
이트클럽, FC방, 노래방을 비롯하여 심지어 각종
종교시설도 현장 예배나 미사, 예불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인터넷이나 동영상에 이용해야 했다. 학
교가 개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면 병원, 요양원, 회사, 공장,
사무실,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했다. '한 채의 폐
가처럼 침몰 해 갈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밀집 지역을 사람들은 회피했다. 아니 스스로를

자가 격리했다. 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되었다.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업이 중
단 되었고 소상공인도 문을 열었는지라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과의 만남도 중단 되었으
며 간혹 만날지라도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
리를 두려고 서로 어색한 행동을 한다. '얼굴 없
는 얼굴 손 없는 손' 들이다.
아파트가 통 채로 코호트 되기도 하고 확진자는
가족끼리도 서로 분리 격리 될 수밖에 없다.
'빗장을 걸어야' 했고 '입구 출구 문을 닫아'야
했다.
'바람조차 거리를 유지' 해야 했다. 어떤 바람일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뭇처럼 감감히 안개 속을 헤매게 될지' '봄
은 영영 문을 닫을지' 거리는 흥흥한 소문들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화 될수록 일상적
소소한 행복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자연친화
적 거리 가까워지기가 시작 된다. 사람들의 활동
이 마비되기 시작하니 아이러니하게 자연은 더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식물,
생물, 곤충, 동물들에게 너무 많은 학대를 가해왔
다. 바이러스는 그 대가인지 모른다. 앞으로 또
어떤 슈퍼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모른다.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봄을 깨우는 것이다
'봄의 문을 닫는 것을 막는 일'이다.
자연 환경을 잘 보전하고 우주 만물을 잘 소생
케 하는 일이다.
선한행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역량이 시대적 요
구로 느껴진다. 그래야 꽃은 피고 봄은 오겠지.
우리의 봄을 믿을 수 있겠지. 잃어버린 봄, 빼
앗긴 봄을 되찾을 수 있겠지.
자연과 인류가 공존 공생하는 아름다운 동거를
믿어야 하겠지.

광양만 연안오염총량관리는 COP28유치의 견인차

안해광의 <애영버라기>



한해광 (서남해센트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광양
만에 총량제 도입 기초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를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다.
광양만은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광양만 산업단지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이산화탄소(CO2) 배
출로 인한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이런 광양만에 연안오
염총량관리제 도입은 당연 환경

할 일이다.
때맞게 여수를 중심으로 경남
서부와 전남동부권 10개 시군이
하나 되어 202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기
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낮추자는 것
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만의

다면 광양만과 남해바다의 미래
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광양만이 살아야 남해
안이 산다"는 시민실천운동이 절
실하다.
육역에서 발생한 탄소를 연안
에서 탄소사냥을 시작하지는 것
이다. 연안을 살려야 바다도 살린
다는 논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때문에 광양만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전남도와
여주시 광양시 등이 머리를 맞대

표수질 달성 여부에 따라 지정 해
제 또는 지정범위 조정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
해 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수
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시행된다면 광양
만 연안오염총량관리는 COP28유
치의 견인차가 되기에 충분하다.
온실가스를 잡지 못하면 기후악
당이라는 오명은 꼬리표처럼 따
라붙을 것이다.

광양만이 살아야 남해안이 산다. 온실가스 잡지 못하면 기후악당오명 꼬리표처럼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COP28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광양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
행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 인
해 더뎠고 있다는 인상이기 때
문이다.
지역사회가 마냥 기업 편에 선

야 할 때다.
광양만은 대규모 산업단지
가 위치한 해역으로 조사를 통해
주요 오염원을 찾아내어 해수, 퇴적
물, 생태계를 정밀 분석,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오염 총량제
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
한다는 것이다. 또 광양만특별관
리해역 지정 기준을 설정하고, 목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선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방식"이라며 "앞으
로 연안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
하고 광양만을 맞춤형 관리를 통
해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양만의 연안오염총량관
리제는 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
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
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에서 시행중이다.



포커스 - 여수의 자연



▲ 큰고니



▲ 노랑부리저어새



▲ 쇠오리



▲ 가리기떼



(유)금오관광 해외여행사

Happy Partner Kumo Tour



전남 여주시 여서동 7길 18, 1층
대표전화 061-681-7471
렌터카사업부 061-681-7472
E-mail bushanaro@hanmail.net

여행 사업부

- 기업출퇴근
국내여행
해외여행
공항수송전문

렌터카 사업부

- 보험대차
장기대차
일반대차
기사대행

나에게 그림은 종교입니다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신병은(시인)

동백꽃에게 길을 묻는 강종열 작가

여수에는 오동도가 있고 그 곳에는 어김없이 겨울 꽃 동백이 있다.

그리고 동백꽃의 작가 강종열이 있다.

그는 40년이 넘는 화력을 지닌 국내의 중견작가로서 지금은 동백꽃작가로 한국화단에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동백꽃의 매력에 빠지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꽃을 그리는 작가는 눈여겨보지 않았을 정도로 평가절하했던 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백꽃작가로 자리매김 되어 여수의 든든한 예술적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우리의 자람이 아닐 수 없다.

3500호에 달하는 스케일도 신선한 충격이지만, 흔히 21세기 인상주의를 표방하는 이 동백작품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동백과 함께한 의미체현의 시간에 주목하게 된다. 그가 동백의 원형적 인상과 호흡을 잡아내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동백 군락지란 군락지는 다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숲한 발췌로 동백과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실이 바로 작품 속에 담아 둔 원형적 인상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해 정성껏 다가갈 때 대상도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강종열은 오랜 체험에서 터득하고 있다.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수없이 피고 지는 동백의 숨소리를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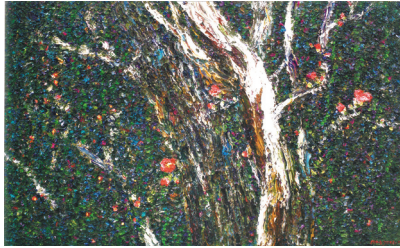
피는 것도 고요, 지는 것도 고요라는 것, 고요는 결국 시간의 깊이임을 알게 된다.

춤과 바람 부는 시간의 견뎌임을 알게 된다.

그 깊이와 견뎌 속에 오랜 원형적인 시간과 공간을 공존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숨 막힐 듯한 원형적 고요와 정적, 원형적인 빛과 어둠을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시간과 공간은 물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어디서 저런 담담하고 저력 있는 호흡이 나오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대상을 마주하고 응시하는 힘이 나올까를 의심하게 된다.

그를 통해 응시의 힘이 곧 재발견의 힘임을 확인한다.

그는 생명의 원형적 통찰을 통해 얻게 되는 사유의 힘으로 그림이 종교라는 자기철학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질 좋은 창작은 신기한 것 보다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오랜 응시에서 비롯된다고 귀띔해 준다.



그는 늘 자신의 그림은 종교와 같다고 말한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만의 작업을 하라고,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남을 흉내 내지 말고 삶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하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 그의 동백은 우리가 늘 보던 동백이면서도, 늘 보던 그 동백이 아니라 그만의 의미체현과 상상력으로 풀어낸 동백이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또 다른 익숙한 것과 의 재회, '낯설다'와 '익숙하다'의 경계가 선명한 그림이다.

색채의 은근한 하모니, 형태를 단순화하고 따로 놓던 색채를 통합하는 기법을 구사한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 깊어지면서 사소한 디테일이 사라지고 자질구레한 모든 것이 퇴장하면서 마침내 그림이 낡게 된다. 대상은 위대해지고 하나의 거대한 합집합체가 되어 캔버스를 채운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은 생명으로 동백 그림이 자리하게 된다.

그림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로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견뎌낸 외로움인데
어떻게 다독여온 아픔인데
어떻게 열어놓은 설레임인데
어떻게 떨쳐놓은 그리움인데
혼자 깊어지다
똑똑
저를 놓아버리는 단음절 첫말이
이렇게 뜨거운데
설마 설마
이게 한순간일라구

- 신병은 <동백꽃피다>

볼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림과 시의 해석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여행이 아닌 입면인 셈이다. 깊은 내면적 통찰이 없는 새로운 의미체현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에 대한 조망과 총체적 사고가 없이는 작품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묻고 들춰보는 호기심과 의심이 창작의 동력이 된다.

그래서 그림은 기교적인 완성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 좋다.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사유의 개입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강종열의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시를 만나고 원형질의 호흡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신화적 의미체현을 한다. 좋은 그림에는 좋은 시가 담겨 있고, 좋은 시에는 좋은 그림이 안겨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림 속에 숨겨둔 시, 세상과의 소통법을 눈여겨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먼 곳에 있는 때 묻지 않은 순결한 원형적 자아를 만나고 현재의 나를 세상과 화해시켜 준다.

좋은 그림은 세상 모든 사람과 통하는 언어를 구사한다.

그런 작품이라면 얼마나 넓고 깊은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의 조형언어는 바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을까 싶다. 자연과 함께 소통하며 자연이 내뿜는 메시지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고 자연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언어가 바로 자연 언어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수평적 관계의 언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총체적이고 상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 즉 관계성의 언어를 중시한다.

저렇게 함께 하나의 온 생명으로 조화를 이룰 때 날 생명 또한 우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의 언어는 그래서 자연과 일치될 수 있는 길이 되고, 새와 꽃의 속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작품 속에 안착하게 된다.

그 힘의 근원은 자연과 하나 되는 조형언어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풍경이 곧 그림이자 시다.

그림은 풍경 속 풍경을 보는 것이면서 풍경 속 시를 보는 것이다.

풍경 체험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든 풍경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옮겨놓는 작업이고, 마음의 수혈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그게 바로 이미지와 형상화다. 그래서 강종열 화백의 그림 앞에 서면 문정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런 질문을 만나는 것이다.

아, 나는 또 어디를 다녀와야 겨울 속 단단한 꽃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그림은 꽃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에 관한 질문이다.

꽃한송이를 피우는 일이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협주곡이라 한다면 저 깊은 동백의 시간과 공간속에 내 가 펼쳐놓은 한호흡은 어디쯤 숨어 있는 걸까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눈 속에 떨어진 그의 동백꽃을 바라보면 취할 수 있는 것도 용기지만 버릴 수 있는 것 또한 더 큰 용기임을 당당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동백이 가장 눈부신 꽃이라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의 화법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꽃을 이해하고 나무를 이해하는 일이 결국은 생명의 원형을 복원하는 길임을 아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 원형적 생명과 호흡력에 기대어 숨이 탁탁 막히면서 가슴 또한 벅차올라 원형거리며 그의 내밀한 울림을 향해 날아들게 된다.

한일 날아한일의 호흡으로
겨울 언저리가 뜨겁다
컬아랴도 허공도 고독도 눈발도 마친내 핀다
그래 그래 그 말 잘 알아
그래 그래 다 알아
견뎌낸 그 말 붙어 더 뜨거운
그게 아라 꽃이었어
하늘이 하늘 당고
땅이 땅다운
그게 아라, 꽃의 단단한 기억이었어
- 신병은 <동백꽃피다>



여수 미남크루즈 국내 최대규모 연안 크루즈

여수미남크루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the Yeosu Minam cruise ship.



저희 여수미남크루즈는 2009년 국내조선기술로 건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크루즈입니다. 최첨단 안전 및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 응급사항에 대비하고 있으며, 승무원들의 인명구조 및 비상대응 등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승무원들로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약속합니다.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남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미남크루즈 운항 변경안내

그동안 엑스포장에서 부정기여객선으로 운항했다가 **돌산대교 선착장에서 유람선면허를 받아 운항.**

- 11시30분, 14시30분, 18시30분 출발.
- 야간운항 매일 운항하며 불꽃놀이는 금,토,일 주3회 행사.
- 1시간 30분 코스.

예약 및
단체문의

061) 644-6255



꿈을 꾸고 꿈을 파는 바리스타... 카페 'I got everything' 이순신도서관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쉼의 자리를 제공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 이순신도서관점 바리스타들을 만났다.

>>>카페 I got everything 이순신점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매니저(김경심) : 이순신도서관에서 책도 볼 수 있고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바리스타 (장근욱) : 장애인들로 구성된 바리스타들이 그들만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커피원두를 비롯하여 재료가 좋고 수제차의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바리스타 (김경례) : 카페가 좋다. 시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바리스타 (장근욱) : 커피머신이 전자동으로 가동되니 너무 편하고 커피도 더 잘 내려지는 것 같다. 손님들도 독특해 보이는 머신기를 궁금해 하신다.

커피원두는 라떼 메뉴에서 단 맛이 아주 강조되는 원두이다. 다른데 보다 차별화 되어 단맛이 풍부하게 올라오는 원두다. 콜롬비아 수프리모,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등 4가지 원두의 균형 잡힌 블렌딩으

로 최상의 커피 맛을 찾은 원두다.

>>>장애인바리스타가 총 10명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바리스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매니저 (김경심) : 삼성증권에서 청소일을 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시간다 해서 퇴직했다.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게 기쁘고 좋다.

바리스타 (김경례) : 장애인 복지관 나올까지 카페에서 2년 근무했다. 2년간의 경력으로 이순신도서관점에 일하게 되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많은 노력을 했다. 비장애인과 같이 필기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고 두 번째 다시 도전해서 실기까지 합격했다.

바리스타 (김홍집) : 예전에 주위 사람들이 바리스타 해보는 게 어렵냐고 권유를 받아 시작했었다. 제일 자신 있는 메뉴는 카페라떼, 바닐라 카페라떼다. 월급을 받으면 적금도 넣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을 때와 어디 놀러갈 때가 가장 좋다. 다음에는 서울 롯데타워를 가고 싶다.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나?
바리스타 (장근욱) : 일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을 해 본 경력이 있어서 장애인바리스타들과 즐겁게 일한다.



청각 장애가 있는 바리스타가 있는데 손님이 오해하시고 화를 낸 경우가 있었다. 한이바지가 입구에서 학생~하고 불렀는데 우리 바리스타가 듣지 못했다.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갔는데 손님이 불친절하다고 불쾌해 했다. 청각장애인이란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다. 모르면 오해가 될 수 있다.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리스타 (장근욱) :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 맛이 없으면 손님들이 오겠는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래시피도 더 맛있게 연구중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생겨서 참 좋라며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리스타 (김경례) : 카페가 장사가 잘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바리스타 (장근욱) : 우리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7천4백여만원 지원받아서 인테리어며, 장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여수시에서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마다 1명씩 추가적으로 바리스타를 고용해야 한다. 5명의 바리스타를 창출해서 총 15명이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수동시민기자



김시현의 일기 '매실의 비밀'

아시리~! 진짜 대단한 날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아빠가 고등학생 시절 때 담근 20년쯤 된 매실주가 있는데 향이 장난 아니게 좋다.

그런데 20년 묵은 매실주를 엄마가 배란다실 바닥에 그것을 버려버렸다. 그것을 하면서 엄마가 "아빠는 이거 없어져도 모른다. 말하지 말라"고 했다.

ㅋㅋㅋ 그 매실주가 더 웃긴게 생수통 대 사이에 딱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

그리고 흘러 내려갈 때 색이 예시름지 않은 아주 진한 검은색이었다.

냄새는 우리 집에서 동생 수현이가 입 냄새 때문에 먹는 양배추즙 냄새가 났다.

그 냄새와 좀 간장이탈까 짠 냄새도 났었다. 과연 아빠가 매실주가 없어진 사실을 그걸 알아챈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내 생각에는 아빠가 못 알아차릴 것 같다.

내가 2년 동안 아빠 입에서 매실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간혹 아빠가 배란다 정리를 하



시기 때문에 어쩌면 알아차릴 수 있을 지도 모르다.

아빠의 눈은 매의 눈이니! 만약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하다. 엄마가 비밀은 없다 하니 말이다.

과연 결말은?!

김시현어린이기자(관기초 6년)

여수지역 최고의 맛집 '여수맛' 어플에서 찾아요~

여수는 어디를 가도 맛집, 친절하고 따뜻한 여수의 정

'여수맛' 어플은 모범음식점을 알기 쉽게 명시해놓았다.

여러 여수음식점을 접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여수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해주시니 한번 사용해 보길 추천한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 중식, 일식, 양식 등 여러 분야의 식당에서 약 140개소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다.

모범음식점이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하며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에는 고고차이나, 배네치아, 산투에, 다담골솥불갈비 등이 있으며 이처럼 다수의 모범

음식점은 여수시에서 배포한 '여수맛' 어플에도 등재되어 있다.

여수 모범음식점은 여러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서 '여수 맛집으로 유명한 이곳은 직접 와보니 정말 만족스러운 곳이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수맛집 한정식 여기 정말 추천 드려요! 완전 가성비 대박 메뉴입니다'라며 칭찬을 연달아 내놓았다.

여수의 여러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맞게 위생을 매우 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며 친절하고 따뜻한 여수의 정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여준다.

여수는 어디를 가도 맛집이라는 말이 있다. 맛은 기본이고 친절과



정결이 완벽한 여수 모범음식 맛집!

여수로 여행을 온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게 어떨까?
조여원 학생기자(웅천중1년)

머시건 프리쳐- 세상이 눈 감았던 아프리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실화

300번의 주연을 맡았던 제러드버틀러의 머시건 프리쳐라는 영화를 친구 덕분에 봤다.

세상이 눈 감았던 아프리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이념도 사상도 없는 전쟁 속에 갈 곳을 잃고 버림받은 고아들을 위해 믿음을 갖고 사랑이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영화다.

거룩한 신을 찬미하는 찬양노래는 마약에 찌들어 범행을 일삼던 악마를 천사가 되어 전사가 되어 싸우게 한다.

일방적인 폭종과 무지의 이들과 자기도취에 빠져 화려하게 치장하는 자들과 싸우게 한다. 아이들이 달린다.

험발로 흠을 일으키며 슬픔을 차고 안식을 향해 달린다.

헤어진 형을 찾는 동생과 부모를 잃은 슬픔을 안고 해매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 안식의 공간은 빛나다.

신을 찬미하는 믿음의 공간에는 빛이 존재한다.

최정규시민기자



기부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빵' 아프리카 힘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 되길

기부란 무엇일까?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부가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부의 뜻은 얼마나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정성으로 내놓는 것이다.

여수시 만덕동 어느 익명의 기부자가 주민센터 현관에 25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놓고 갔다고 한다. 돼지저금통에는 '손

자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시작해 9년 동안 동전을 모았다'면서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나도 부자가 아니지만 학교에서 '사랑의 빵'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프리카의 힘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매년 기부를 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동전 하나도 기부다. 기부는 부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기부는 부자들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기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규리 학생기자(웅천중1년)

토탈하우징

대표 강 정 미

목공, 설비

싱크대, 불박이장

도배, 장판

욕실 리모델링

타일, 샷시, 전기조명, 방수페인트, 중문

전남 여수시 오림4길 3 (오림동) TEL 061-642-1645 HP 010-4631-1645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왜 가르칩니까?”



초대석

김용대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남도교육 1번지. 관내 학생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따라 미래 지향적 교육을 위해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수교육지원청이다.

이하 내용은 36일 꿈꾸는 학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용대 교육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성장을 해야 할 아이들이 폭력으로 상처받고 있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다. 이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사실상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학교폭력은 내 자식만 생각하면 민원인이 되고 남의 자식까지 생각하면 교육의 주체가 된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아이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학교와 어른들은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교육기관이나 학교, 가정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모르는 척하고 방치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2020년에는 문해력·수해력 캠프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



다. 같은 세상과 연결되는 도구인데 21세기에 문맹이라니 다소 낯선 이 말이 현실 속에 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하고 덧셈 뺄셈을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미 누적된 실패의 경험이 있어 본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

공부를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여자로 공부부 시키자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교육 선진지인 북유럽에 퍼터스쿨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음악이나 체육 등 특정 영역에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다. 교육자치와 관련된 정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 우리 여수교육지원청도 2020년에는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교육의 성공적 모델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오케스트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부 특권층에만 주는 혜택이라는 말도 있다. 현재 18개 학교에 19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국악팀, 관악팀, 관현악팀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케스트라에도 지원해주고 있다. 미래교육은 교양이라는 교육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미래의 교양이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글로 쓰기도 하고 연주이고 노래일 수도 있다.

이 사회의 강요를 넘어서 사람의 자연성과 독자성을 재발견하여 본래의 자기를 찾는 것이다.

미래의 교양이라는 교육은 여가의 풍요로움과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는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열어줄 것이다.

악기를 다루고 연주하고 혹은 노래를 하여 스스로 담당해지고 무대 위에서 자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합창을 하는 아이들이 무대에 서고 스스로 담당해 지는 모습을 봤다.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다.

전체에게 기회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일사단결이 아니라 하모니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오케스트라다. 다른 대도시와 교류를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무경 도의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와 다양한 지원에 대



하여 작년부터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도화된 거대한 교육 밖의 교육이라서 쉽지는 않다. 학교처럼 단편적으로 가르치고 교과과정을 습득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학교 밖을 벗어난 아이들에게도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여수시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 강현규 소장님과 정례모임을 하고 있다. 꿈드림은 아웃리치활동을 통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검정고시학습반, 인터넷강의 및 교재지원, 건강검진, 문화예술교육(기타교실), 문화체험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여수시 및 관광객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여수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언제든지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교육은 현장이 중요하다. 교사가 어떤 마인드로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말한다면 “왜?”라는 질문이다. 신규 교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왜 가르칩니까?”를 물어 본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산유화를 가르친다면 ‘나는 왜 산유화를 가르치지?’라고 나 스스로에게 늘 묻는다. 아이들은 이걸 왜 배우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묻는 나의 철학을 신규 교사들에게 말해준다.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라. 학생들은 왜 배우고 나는 왜 가르치는지 ‘왜?’라는 질문을 항상 반복한다.

선생님이 먼저 학생이 나중이라는 슬로건이 필요하다. 즉 선생님이 먼저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학생이 따라오게 하

는 눈높이 교육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온라인개학을 맞이하게 됐다.

온라인 개학이 갑작스럽게 시작됐고 더구나 처음이라서 혼란스럽고 시스템 오류발생도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여주고 이겨나가야 하는 흐름이다.

ES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학생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학교 가는 것과 똑같다.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실시간 화상수업 및 과제제시 혼합형 원격수업이 진행된다. 오프라인개학이 현 시점으로는 어려워져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인터넷 디지털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고 지역적, 학교별로 진행될 수도 있다. 선택의 여지없이 온라인개학을 하게 됐지만 미래교육을 앞당기게 되는 계기로 오히려 이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내야 한다.

최항란기자



Pride & Hope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전신(前身)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명예졸업증서 수여 신청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 전남대학교 전신(前身)학교에 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여수	여수공립간이수신학교	여수공립수신학교	전수과	여수공립수신중학교
	여수수신고등학교	여수수신고등전문학교	여수수신전문학교	여수수신전문대학
광주	도립목포상과대학	도립목포초급상과대학	목포공립상업학교	목포공업학교
	도립목포상업전문학교	도립광주농과대학	도립광주초급농과대학	광주농업중학교
여수	갑종농업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	도립광주농림학교	대성대학
	광주외과대학	광주의학전문학교	외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외과대학부속간호전문학교
여수	외과대학부속간호학교	외과대학부속중등교사양성소	외과대학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신청서류 • 명예졸업증서 신청서 1부
• 전남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대한 동의서 1부

신청처 • 여수-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동창회 사무실
-전남대학교 학무본부 교학기획과
※직접 방문 및 이메일(yeosudc@hanmail.net)제출
• 광주-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실
-해당 단과대학(전신 학교 관리대학) 행정실

신청기간 2020년 4월 20일(월)까지

문의전화 여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동창회 ☎061-642-2103
전남대학교 학무본부 교학기획과 ☎061-659-6201~2

광주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062-528-9946
전남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062-530-1057, 1051

21대 총선 여수 갑 주철현, 여수 을 김회재 당선



제21대 총선에서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61),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57) 후보가 당선됐다.

21대 총선 여수시 투표율은 총유권자 23만9468명 중 15만5080명이 투표해 64.8%를 기록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여수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당선인은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개표 결과 유효 득표 7만5119표 중 4만8410표(64.44%)를 얻어 2만3128표(30.78%)의 무소속 이용주 후보에 2만5282표차로 앞섰으며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는 2846표(3.78%),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후보는 735표(0.97%)의 득표율을 보였다. 무효투표는 1494표, 기권표는 4만2215표로 집계됐다.

여수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는 유효 득표 7만7217표 중 5만5273표(71.58%)를 얻어 1만5302표(19.81%)의 무소속 권세도 후보를 3만9971표 차이로 이겼다.

미래통합당 임동하 후보는 2888표(3.71%), 정의당 김진수 후보는 3774표(4.88%)를 보였다. 무효투표는 1225표, 기권표는 4만2088표로 집계됐다.

최항란기자

“문재인 정부 성공, 더 살기좋은 여수를 위해 뛰겠습니다”

함께 바꿔갑시다!

여수 갑. 주철현 당선인 당선 소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혁동력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바람과 주철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한 민심을 받아내고, 저 주철현이 시민을 대신해 국회로 가겠습니다.

사법개혁, 공정사회 정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민주정부 재창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관광 제도약,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섬 주민들

의 정주여건 개선,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 등 여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성공과 더 살기 좋은 여수를 위해 더 듣고, 더 보고, 더 뛰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선거 운동기간 동안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가장 힘 들었습니다.

여수는 선거 때 마다 선거혼탁지수가 전남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예비후보 등록이후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마음 아팠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경쟁후보의 무차별적인 네거티브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일침을 고수하고, 시민 속에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 결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고, 여수의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봤습니다. 함께 바꿔갑시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선거를 후보자에게는 당락의 결과를 내 놓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을 통해 비전을 이뤄 낼 힘을 결집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앞섰습니다.

과정은 혼탁했어도, 선거 후 여수의 도약을 위해 힘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시민을 실망시켰던 과정을 최대한 빨리 잊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합니다.

저 주철현이 앞장서겠습니다. 갈라져 있는 시민의 힘을 모으는데 함께 나서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저 주철현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정을 주신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수,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

“분열된 여수통합 국정안정 기여”

여수 을. 김회재 당선인 당선 소감

21대 총선 전남 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당선인이 “새로운 여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회재 당선인은 “출마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위대한 여수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여수, 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분열된 여수 정치를 통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육성해 여수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가

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한 여당의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어 여수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으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과 국정안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수발전은 물론이고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2022년 민주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항란기자



OPEN 금보성 STUDIO

2020.4.1~4.30 기획_김종근평론가

한글 웃음을 던지다

KIM BO SEONG ART CENTER 서울특별시 중로구 평창36길 20 전화 : 02_396_8744